

<우리의 네비게이션, 여호와 하나님> - 민 9:15-23

1. 이스라엘의 행진

2.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많은 운전자가 네비게이션을 켜서 운전합니다. 네비게이션을 켜서 운전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길을 더 잘 알고 있어서, 네비게이션이 빠르게 올바른 길로 올바르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네비게이션을 신뢰하지 않는 나의 직감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평소 많이 다녀서 이 길은 내가 차라리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도착 시간이 더 늦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네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할걸!”이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네비게이션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네비게이션이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구름 기둥은 성막을 가득 채운 여호와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광야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구름이 불 모양이 되어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따라서 구름은 행군 중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를 해주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진을 치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행진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그들 앞서 구름이 이동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완전히 걷혀 올라가면 비로소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름이 성막 위에 몇 시간,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머물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때때로 구름이 성막에 몇 달 머물면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으며, 때때로 구름이 걷혀 올라가면 새로운 곳에 도착한 자 불과 몇 시간 만이라도 다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지도가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네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구름만 바라보면 됩니다. 또한 비록 그들 스스로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물과 양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에 하지 않으면 됩니다. 더욱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왜 헤매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주십니다.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기쁨의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우리의 네비게이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 되자!

<불신과 원망이 낳은 결과> - 민14:26-38

1.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 정탐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어이없는 단체 행동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와 아론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몹시 화가 나시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멸시와 불신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자신들에게 베풀어주신 기적과 은혜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여,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울부짖는 간구를 들어주사, 그들을 멸하지는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40년의 세월을 광야 한가운데에 지내다가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망의 목소리를 내뿜었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

았을 것을”이라고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여러 방법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여 전진하지 못한 백성들의 삶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사 은혜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우리 기쁨의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자!

<회복의 찬스> - 민21:4-9

1. 죄의 심판

2. 주를 바라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호르마를 점령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 생활에서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다는 것 그리고 먹을 음식이 있다고 해도 먹기 싫은 만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늘의 떡이며, 예수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며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아 놓고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패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전진하여 이곳까지 왔지만,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듣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하는 것에 진노하사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자, 백성들은 모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모세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뱀에 의해 물린 모든 상처가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재앙을 거두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뱀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만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되고 회복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대에 매달린 뱀뱀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뱀뱀을 바라본 자들이 모두 살게 된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 영

생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요 3:14-15).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늦뱀은 불뱀에 의해 물린 상처에서 물리적 회복을 해주었지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구적인 치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누려왔던 모든 일상의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다 못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가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 민27:12-23

1. 모세가 걸어온 길
2.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세

지금까지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처음 출애굽 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1세대 백성들만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지도자 모세와 아론 역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신 후 가나안 대신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십니다.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신 광야 가데스의 트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가 한 행동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물을 터뜨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이지 않았기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운명보다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지도자는 모세를 대신해야 하므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백성들 앞에서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아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청을 들으사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의 지위

는 모세와 같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청하기도 하였지만, 여호수아는 엘르아살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상의할 일이 있다면,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찾아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차에 따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휘권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되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 모세가 주도하고 여호수아를 도우며, 인수인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져가 시기도 합니다. 또한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려오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개 아쉬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도자로 세워주셨지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는 그를 폐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공동체의 앞날을 생각하며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열심히 돕고 인수인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아쉬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자!

<참고문헌>

1. ESV 스테디 바이블
2. HOW 주석
3. 엑스포지멘터리
4. QA시스템 성경연구
5. 라이프성경사전
6. 매일성경전집
7. BKC 주석